

# 광주·전남권 민간위원 2명뿐

과학벨트위원회 오늘 첫 회의...당연지 위원 한명도 없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이하 과학밸트) 조성사업이 7일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위원회(이하 과학밸트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하지만, 과학밸트의 입지 등을 결정할 과학밸트위에 호남권 인사의 참여가 크게 부진,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밸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과학밸트위를 구성, 7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과학밸트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교과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차관 6명과 민간 전문가 1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 13명에는 ▲김강주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부위원장) ▲박상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강태진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 ▲이승종 서울대 부총장 ▲오세정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김명환 한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 ▲나경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노정혜 서울대 교수 ▲이병택 전남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과학밸트위는 앞으로 과학밸트의 입지, 예산 및 재원조달 방법, 콘텐츠 등을 논의해 최종적으로 과학밸트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산하 분과위원회로는 입지평가위원회와 기초과학연구위원회가 운영된다. 정치권과 지역간 협약한 갈등으로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른 과학밸트 입지의 경우 입지평가가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과학밸트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13명 가운데 광주·전남권 인사는 이승종 서울대 부총장과 이병택 전남대 교수 등 2명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명, 영남권 3명, 충청권 2명, 강원권 1명이었다. 당연지위원회는 영남권 5명, 서울·강원권 각 1명씩이었으며 광주·전남권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과학밸트위 분과위원회로서 입지를 결정하게 될 입지평가위원 9명 중에서는 광주·전남권 인사로 이 부총장과 이 교수 그리고 한문희 충남대 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장 등 3명이 참여했다. 영남권과 충청권에서는 각 2명 그리고 서울과 강원권에서는 각 1명이 참여했다.

또 다른 분과위원회인 기초과학연구위원회 10명 중에는 서울에서 6명, 영남권에서 4명이 각각 참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민간위원을 선정했고, 입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들의 지역별 균형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뜨거운 감자’ 과학밸트 입지선정 어떻게

## 입지평가 상반기 중 평가 결과 발표

## 지역균형발전 분산배치 방안 힘 받아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무산된 뒤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치권의 관심이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이하 과학밸트)에 집중된 가운데, 입지를 비롯해 과학밸트 관련 주요 내용을 결정할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위원회(이하 과학밸트위)가 7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과학밸트는 정부 추진지원단 추정(2009년 1월) 예산 규모가 약 3조5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로, 그만큼 각 지역의 사활을 건 유치 경쟁 열기도 뜨겁다. 광주시는 “과학밸트는 국가 백년대계와 국민통합,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며 “광주·전남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종이온 가속기가 위치해야 하며, 대구와 대전에 제2, 3캠퍼스를 분산 배치하는 내륙삼각밸트 방식이 가장 과학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밸트위 입지 결정= 지난 5일 발효된 과학밸트특별법에 따르면 입지 선정을 포함해 과학밸트의 기본계획은 전적으로 과학밸트위원회가 심의·결정하게 된다. 과학밸트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교과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개발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등이다. 사설상 전국 대부분

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차관 6명과 민간 전문가 1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입지는 과학밸트 위 산하 분과위원회의 하나인 입지평가위원회가 심사·평가하게 된다. 입지 선정이 과학밸트 기본계획의 일부지만, 정치권과 지역 갈등이 뛰어 커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 전체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올 상반기 중으로 입지 평가 결과만 우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밸트 입지 요건은= 입지 평가에 앞서 구체적 선정 기준이 위원회에서 마련되겠지만, 과학밸트 부지가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은 과학밸트법에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과학밸트법에 규정된 ‘거점지구’의 기본적 입지 요건은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수수한 정주환경 조성 정도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지 확보의 용이성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정성 등이다.

◇유치경쟁 기열= 현재 과학밸트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은 광주·전남권과 대전·충청권, 포항·대구·경북권, 창원·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이다. 사설상 전국 대부분

분의 지자체가 과학밸트 유치전에 뛰어든 셈이다. 더구나 최근 영남권 신공항 계획이 백지화하면서, 남아 있는 최대 국책 프로젝트인 과학밸트 사업을 둘러싼 지역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분위기다.

현재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과학밸트를 여러 지역에 걸쳐 분산 배치하자는 방안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광주시가 ‘광주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종이온 가속기를 설치하고 영남과 충청권에 제2, 제3 캠퍼스를 두자’고 제안한 ‘내륙삼각밸트 배치’가 대표적이다. 일단 영남권은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어 구체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분석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여수를 찾지 않아도 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현재 800만명의 관람객 수를 예상하고 있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여수를 찾지 않아도 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현재 800만명의 관람객 수를 예상하고 있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다. 한국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참가국도 잘 해줄 것으로 본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대화를 통한 결과물이 기대된다. 또 IT를 활용한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 중심